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가 아니다

김윤경(Kim Yunkyong)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일렁이는 공기의 흐름, 그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분홍색 장미가 연이어 꽃망울을 피워 낸다. 벽에 걸린 화면(畫面)을 멍하니, 한참 넋 놓고 바라보고 있자니 꿈인 듯도 싶고 생시인 듯도 싶은 풍경이 눈앞에 피어오른다. 언뜻 장미가 한가득 정성스레 그려져 있는 듯도 한데, 그렇다고 작정하고 장미를 그렸다고 선뜻 단정짓기도 미심쩍은 모양새다. 성실한 사생(寫生)의 결과도, 열정적인 감정의 표출도 아닌 듯한 어떤 형상들이 물감으로 드리워진 얇은 막 같고 공기 같은 얼룩 위로 여릿하게 애매하게 아른거리며 떠다니는 탓이다. 이수경의 장미는 이렇듯 현실 위에 포개어진 비현실처럼, 그렇게, 눈앞에서 피어난다.

지난 초여름 어느 날 이수경은, 불쑥, 장미를 그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작가 이수경과 장미의 조합이 딱히 낯설게도 새삼스럽게도 느껴지지는 않았다. ‘장미’를 모티브 삼아 구성했던 그의 최근 전시¹와 이 매혹적인 꽃이 매우 빈번히 등장했던 그의 회화 연작²을 이내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그려진 그림 속의 장미는 성급하게 단정짓고 선불리 예측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지난해 내내 이수경이 흘린 듯 그렸던, 또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있는 그 꽃은 이수경의 이전 작업에서도, 다른 누구의 어떤 작업에서도 본 적 없는, 야릇하고 관능적이며 지극히 아름다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겹겹이 펼쳐지는 화려한 꽃잎과 달콤한 향기를 지닌 장미는 오랫동안 ‘꽃들의 여왕’으로 사랑받아 왔다. 고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의 꽃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순교(붉은 장미)와 순결(흰 장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 천상의 향기와 아름다움은 원죄(原罪)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한 인간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동양에서도 장미는 아름다운 여인에 비견되어 왔으며, 오래도록 젊음을 누리고 싶은 소망을 담아내거나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것은 장미를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던 로마인들이 이 꽃을 종종 사랑하는 이의 무덤에 심었던 것과, 역시, 의미적으로 일맥상통한다.

이수경의 작업에서 장미는 작가의 전생 여행 체험과 더불어 강렬하게 등장한다.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온 장미는 이 특별한 여정에서 이수경을 매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나는 붉은 장미가 만발한 숲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전생 여행 체험에서 장미는 하나의 생에서 다른 생으로 넘어가는 고비마다 어김없이 등장한다. 장미는, 이수경의 언급처럼, “두렵지만 설레는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이다. 전생으로, 그 전생의 전생으로 거듭 넘어가면서 매번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두렵고 설레는 상반된 감정이 장미로 두근두근 피어난다.

¹ [오 장미여!], 202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² <전생 여행 그림>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회화 연작은 2015년에 열린 전시 [내가 너였을 때](2015, 대구미술관)에서 <전생 퇴행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공개되었고, 이후 (수정된 제목으로) [믿음의 번식](2015, 아뜰리에 에르메스), [오 장미여!](202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먼길 이야기](2021,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등의 전시에 등장했다.

능란한 이야기꾼인 이수경은 전생 여행 체험을 통해 오랜 세월 회화가 구축해온 전통과 관례, 담론이라는 견고한 맥락들로부터 훌훌 벗어나 캔버스를 마주하고자 시도했다.³ 최면을 통해 호기롭게 무의식의 심연으로 들어선 작가는 끝없이 이어지는 전생의 매 순간 마주했던 장면 장면을 차근차근 되짚는다.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수차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무수한 인연, 아득한 시간 그 너머에는 기쁨의 순간도, 즐거움의 순간도 존재하지만, 더 많은 노여움과 슬픔, 괴로움과 아픔의 기억 또한 남아 있다. 무의식 속에서, 늘 그렇듯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과 감각들이 장미의 이퀄립을 따라 비로소 화면으로 체현(體現)된다.

장미가 만발한 숲을 걸어가다가,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거닐다가 작가는 고래를 숭배하는 모계 부족의 족장으로,⁴ 늙고 병든 남편을 여의고 훌훌 길을 떠나는 가련한 여인으로 삶을 살았던 전생의 자신을 발견한다. 장미로 뒤덮인 숲을 지나면 어느새 그는, 다시, 자신을 죽인 사냥꾼에게 복수하기 위해 환생해 전생의 새끼들 곁을 배회하는 꿈이 되어 있기도 하고, 승려로 환생해 면벽 수행(面壁修行)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후 영혼으로 떠돌다 마애불(磨崖佛)로 스며들기도 하고, 역모(逆謀)의 누명을 쓴 아버의 딸로 태어나 혼사를 앞두고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한 뒤 물거품으로 되살아나 이내 몸집을 불려 해일(海溢)로 마을 전체를 휩쓸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장미는 <전생 여행 그림> 연작(2014~) 곳곳에 강렬하게 자리잡는다. 때로는 작가의 전생 서사가 펼쳐지는 장면의 배경으로, 때로는 압도적으로 화면 전체를 뒤덮으며, 되살아난 전생의 기억을 붉게 각인시킨다. 반면, <오 장미여!> 연작(2022~)에 등장하는 장미는 특정한 맥락에도, 구체적인 형체에도 기대지 않는다. 눈앞의 장미를 찬찬히 관찰하고 온전히 파악하여 고스란히 옮겨내기보다는 장미로 말미암은 감각을 형상화해보기로 마음먹은 듯한 유려한 손놀림이 인상적이다. 결국, 비현실적인 자태로 드러난 이수경의 장미는, 그래서인지, 오히려 의식 저 너머에 뒤엉켜 축적된 서사를 헤쳐 장미의 본질을 소환하고 원초적 감각을 건드린다.

그래서일까. ‘장미’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오 장미여!> 연작에는 장미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구성했던 <전생 여행 그림> 연작과의 연관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작업 전반에서 포착되는 감각은, 오히려, <번역된 도자기> 연작(2002~)과 더불어 2000년대 초 이수경의 작업 세계를 양분하던 <불꽃> 연작(2005~2009)에 한층 근접해 있다. 기시감(既視感), 숨쉬듯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덩굴을 따라 뻗어나가는 장미는 흡사 끊임 없이 이어지며 세차게 타오르던 불꽃의 기운을 떠올리게 한다. 불꽃을 재현하기보다는 불꽃의 본질을 환기시키는, 그래서 더 세차게 어른거리던 그 붉은 기운을.

³ 동시에 이 전생 여행 체험은 작가 스스로가 시도해왔던 작업의 맥락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이기도 한다.

⁴ 전생 여행 체험 중 도입부에 등장하는 모계 부족 족장으로서의 전생 서사는 부분 부분 발췌되어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2022, 더페이지갤러리)에서 선보인 <오 장미여!> 연작의 부제로도 사용되었다.

1990년대 초 첫 개인전⁵ 이후로 현대미술의 담론과 방법론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작업의 범주를 다각적으로 확장해가던 이수경은 돌연 <불꽃> 연작을 발표하며 **다른 세계로의 문을 열어젖힌다**.⁶ 동양에서 악귀를 쫓는 부적을 그릴 때 사용하던 경면주사를 선뜻 재료로 선택한 이수경은 광증(狂症)을 다스려 진정시키는 약재로도 쓰였던 이 재료의 신통한 효력으로 내면의 불길을 통제라도 하듯, 시뻘건 불꽃을 화면 가득 가뒀다. 이전의 작업 맥락과는 사뭇 다른,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어떤 감정들에 호소하는, 전혀 다른 온도와 감각으로 드러낸 암묵(暗默)의 외침이었다.

은 세상을 무작정 불태워버리려는 듯 격렬하게, 시뻘겋게 넘실거리던 불꽃은 2008년을 전후하여 점차 작가 주변의 서사를 담아내면서 변화한다. 이수경이 처음 경면주사로 불꽃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커다란 화면에 너울거리며 타오르는 불꽃들이 가득했는데, 이 거세게 뻗어나가던 불길은 어느 순간 섬세하게 무언가의 형상을 더듬어가는 듯한 움직임으로 변모한다. 불꽃의 기운만을 반복하던 손의 움직임은 점점 구름처럼, 풀처럼, 때로는 용이나 괴물, 소녀의 얼굴처럼 다양하게 변용되어 유려하고 우아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냈다. 내면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던 시선이 외부로 열리고 세계에 대한 몸과 마음의 진동과 파동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수경의 불꽃이 내면에 숨겨진, 혹은 외부 세계에 반응한 감정, 증오와 좌절, 두려움과 분노로 불타오르는 형상이듯이, 장미 역시 어떤 감정들을 숨쉬듯, 어찌면 토해내듯, 한 송이 한 송이씩 피워낸 결과물이다. 감정과 호흡의 강도와 진폭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작가의 내면이 화면 위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듯하다. 그러나, 막연한 감정의 덩어리를 거센 기운으로 쏟아내던 초기의 불꽃이 작가가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귀기울이게 됨에 따라 점차 정제되고 진정되어가는 것과는 달리, 전생 역행 체험이라는 구체적 서사로부터 비롯된 강렬한 장미는, 오히려, 의지하던 맥락과 배경을 덜어내고 서서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모호하고 나긋한 기운으로 변모한다.

마치, 구체적인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자유로운, 해방된 몸짓과 호흡으로 ‘그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용이해진 양, 이제, 이수경의 세상에는 ‘그림’과 ‘그것을 그리는 나’만이 존재한다. 장미는 ‘장미’가 아닌 그 충만한 각성의 순간을 강화하는 ‘매개’가 된다. 반복과 집중은 황홀경 속에서 몸과 정신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징한 각성을 유도하기도 한다. 끊임 없이 흐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의 매 순간에서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끝없이 연장되는 시간 속에, 순간순간,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는 일은 모호한 세상에 만연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마법의 주문이다.

오랜 시간 이어진 수많은 서사 속에 등장했던 ‘그’ 장미는, 사실,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의 장미는 화려하고 세련된 꽃을 얻어내기 위해 거듭된 인위적 교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미에서 그 옛날의 의미나 오래된 상징을 떠올리고 연관 짓는 것은 부질없는

⁵ 이수경을 작가로 자리잡게 한 첫 전시는 1992년에 열렸던 개인전 [나와의 결혼](1992, 인데코갤러리; K 갤러리)이라고 언급된다.

⁶ [불꽃], 2006, 원앤제이 갤러리.

일이다. 그런 의미가, 그런 상징이 연유했던 그 자태와 형체는 진작 자취를 감추었고, 내가 보아왔던 장미는, 어쩌면, 켜켜이 쌓여온 과거 이야기들과는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다. 이수경의 장미도 마찬가지다. ‘장미’라는 대상, 그 장미가 이끌었던 전생으로의 여정, 그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기억들 모두에서 장미는 이제,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이수경에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거나, 혹은 시간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순간,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작품과 작가 자신, 둘만이 존재함을 명료하게 자각하는 이수경은 이별이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다시 말해, 결코 떠나거나 헤어지지 않을, 소멸하지 않을 그 세상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화면 위에 체현시킨다. 그리고 기꺼이 그 세상과 하나가 되기를 택한다. 온갖 두려움을 훌훌 털어버린, 장미를 빌미삼은, 모든 감각이 고양되고 환희로 가득한 그 순간으로 그는 침잠한다.

장미 봉오리를 그리기 위해 이수경은 얼룩들 사이로 장미 환영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 얼룩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장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말끔히 걷힌 세상이 보내는 충만함의 신호였을까. 낮게 읊조리는 노래 선율을 따라 화면 여기저기에서 장미 봉오리가 꽃망울을 터뜨린다.⁷ 눈이 멀어버릴 듯한 하얀 빛, 그 빛이 방안 가득 피어 있는 장미를 하얗게 지워버린다. 장미는 빛이다. 그저 빛. 장미를 기다리면서, 장미를 떠올리면서, 장미를 그리면서, 그 장미의 감각을 다시, 또다시 직조하면서 이수경이 다가선 그 문 앞에 서 본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쉬 후 잠시 기다린다. 장미가 떠오른다. 나는 이것을 무엇이라 이름 붙여야 할까.

⁷ <꽃밭에서>(2022).